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카타르

State of Qatar

2019년3월28일 | 조사역(G3) 안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1천 km ² 	인구 2.78백만명 (2018 ^e)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GDP 1,882.95억 달러 (2018 ^e) 	1인당GDP 67,818.33달러 (2018 ^e) 	통화단위 Qatar Riyal 	환율(U\$기준) 3.64 (2018) 

-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타르는 인구 278만 명, 국토 면적 11천 km²에 불과한 소국임.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온 이주민이 많고, 수니파 이슬람교 외에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등 인종·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국가임.
- 원유 및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인당 GNI 세계 6위의 경제 부국임.
- 절대왕정 국가로 19세기 중반 이후 Al Thani 가문이 왕위를 세습하고 있음. 1995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Hamad 前국왕은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현재 그의 아들인 Tamim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중립·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분쟁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7년 6월 시행된 GCC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및 이집트의 카타르에 대한 단교 조치가 장기화되어 이란, 터키 등으로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4. 18 수교 (북한과는 1993. 1. 11)

주요협정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1984), 문화협력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99), 항공협정(2009), 이 중과세방지협정(2009), 치안협력협정(2010), 군사협력협정(2014)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535,702	435,462	526,265	선박, 자동차, 냉난방기
수입	10,081,309	11,267,090	16,298,814	원유, 천연가스, 석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91건, 71,041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4.0	3.7	2.1	1.6	2.7
소비자물가상승률	3.4	1.8	2.7	0.4	0.3
재정수지/GDP	15.3	5.4	-4.7	-1.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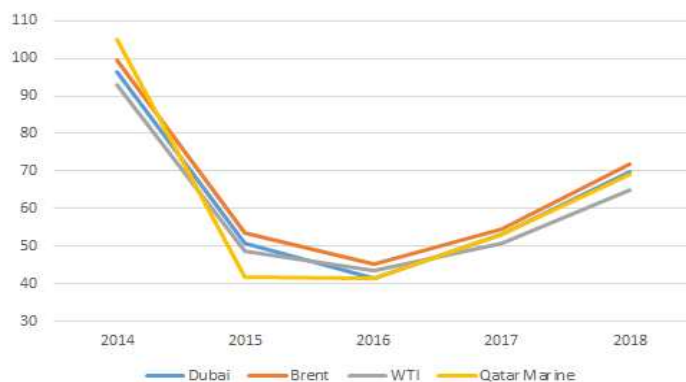
자료: IMF, EU

국제유가 회복 및 건설·인프라 투자에 따라 2018년 경제성장률 소폭 회복

- 카타르 경제는 2000년대 초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투자 증대에 힘입어 2006~10년 중 연평균 18%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6년 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은 유가 회복세 저조 및 단교사태의 영향으로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다만, 단교사태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신속한 대응(①수입 대체 경로* 확보, ②카타르 중앙은행 및 QIA(카타르 국부펀드)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분 상쇄 등)으로 단교사태의 악영향은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기존) GCC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 (신규) 이란, 터키, 오만, 파키스탄 등
- 한편, 2018년은 국제유가 회복,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국제유가) 카타르의 6개 해상 유전 원유를 혼합한 카타르 마린 오일의 평균유가가 2018년 중 전년 대비 30.1% 상승한 69.24달러/배럴을 기록하여 순수출 규모가 증가하였음.
-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에 따른 경기장, 호텔, 주거·상업용 건물 신축 및 신규 교통 인프라 건설 투자 목적으로 2018년 중 스포츠·월드컵 예산(30억 달러), 교통 및 인프라 예산(115억 달러)을 투입하였으며, BMI에 따르면 2018년 중 건설업 및 인프라 산업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15.4%, 8.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국제유가 추이

(단위 : 달러/배럴)



자료: Petronet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식량 가격 안정화로 2018년 0.3% 기록

- 카타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유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2017년에는 단교사태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정부의 신속한 신규 수입경로 확보, 불확실성 발생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0.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카타르 리얄(리얄) 환율은 2008년 이후 달러당 3.64리얄 유지

** 카타르는 2016년 기준 사우디, UAE로부터 전체 식료품 수입의 약 30%, 전체 수입의 약 13%를 의존하였음.

- 한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 및 식량 국제가격 안정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당초 GCC 국가간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된 부가가치세(5%)* 적용 지연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세) 2015년 12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저유가 지속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5%)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카타르는 2017년 6월 발생한 단교 사태의 장기화로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도입이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 혹은 2020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GCC 합의로 국가별 필요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영세율(Zero rate) 적용이 가능하며, 카타르 정부는 식료품 등에 영세율을 적용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 재정수지는 흑자 회복

- 카타르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고유가의 영향으로 GDP 대비 10%를 상회하는 재정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진행된 유가 하락으로 세수가 급감*한 반면 재정지출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으로 증가하여 2016년 최초로 재정적자를 기록함.

* 2016년 기준 정부 수입의 82.4%가 에너지 산업에서 비롯되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82.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정부 및 공공기관 통폐합, 예산 축소 등 구조조정, 전기, 수도, 휘발유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6% 까지 감소함.

* 재정지출 추이 : 2,217억 리얄('16) → 1,959억 리얄('17)

- 한편, 2018년에는 2022년 월드컵 준비 및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추진에 따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앞 재정지출 지속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합의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흑자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입) 카타르는 2018년 45달러/배럴 기준으로 정부예산을 책정(재정수입 1,751억 리얄, 재정지출 2,032억 리얄)하였으나, 2018년 실제 평균유가가 약 70달러/배럴을 기록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2,773억 리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재정지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구축(20.7%), 보건·의료 분야(11.2%), 교육 분야(9.4%) 등에 책정하여 프로젝트 예산 앞 지출이 지속되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49,410	13,751	-8,270	6,426	19,552
경상수지/GDP	24.0	8.5	-5.5	3.9	10.4
상 품 수 지	95,557	48,798	25,375	36,733	52,593
상 품 수 출	126,702	77,294	57,309	67,498	84,289
상 품 수 입	31,145	28,496	31,934	30,766	31,696
외 환 보 유 액	42,192	35,991	30,169	13,176	28,538
총 외 채	166,403	121,559	169,056	146,429	159,265
총외채잔액/GDP	80.7	75.2	111.4	87.7	84.6
D.S.R.	5.4	8.1	11.1	10.0	9.3

자료: IMF, EIU

2018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0%대 흑자 기록

- 카타르 경상수지는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유·천연가스 수출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한편, 2011~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GDP 대비 20~30%대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출금액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저유가지속에 따른 수출액 감소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카타르의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는 규모가 작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편임. 다만, 카타르 거주 이주 노동자들의 증가로 이들의 본국 송금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7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수출액 증가 및 단교사태에 따른 상품 수입액 감소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자본재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회복 및 아시아에 대한 LNG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10%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2017년 단교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LNG 수출에 제한이 예상되었으나 주요 수출경로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Hormuz) 해협 봉쇄가 발생하지 않아 LNG 수출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2017년 기준 카타르의 세계 LNG 시장 점유율 : 26%

외채상환능력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 회복, 풍부한 국부펀드 보유

- 외환보유액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4년 42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한편, 2017년에는 단교사태 발생 후 카타르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앞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132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록으로 외환보유액이 285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7년 2.2개월에서 2018년 4.6개월로 회복되었음.
- 한편, 카타르는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을 통해 원유·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카타르 산업 다각화 및 국가의 수입원 다양화를 위해 국내외에 투자중이며, 국부펀드의 규모는 2018년 7월 기준 3,200억 달러(GDP 대비 약 170% 규모)로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다소 높은 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중반 이후 저유가 추세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외자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 카타르는 자원 조달을 위해 국부펀드의 자산 매각이 아닌 자국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국채 발행을 채택하여, 2016년에는 총외채잔액/GDP 비중이 111.4%에 달하는 등 다른 GCC 회원국에 비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높은 편*임.

* 2018년 기준 GCC 회원국 총외채잔액/GDP(%) : 오만(80.7), 바레인(68.3), 아랍에미리트(66.3), 쿠웨이트(41.3), 사우디아라비아(27.6)

- 2017년 단교사태 발생 시 카타르 정부는 QIA의 유동성 투입 및 국채 발행 증가*를 통해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응하였으며, 국채발행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87.7%로 감소하였음. 한편, 2018년에는 총외채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GDP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카타르 국채 발행 규모 : 280억 리얄('16) → 475억 리얄('17) → 362억 리얄('18)

- 다만, 단교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및 국제유가 회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추이(US\$백만) : 1,040('14) → 1,071('15) → 774('16) → 986('17) → 1,134('18°)

구조적취약성

석유·천연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로 에너지 가격 및 수급변동에 취약

- 카타르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서도 석유화학 분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이 원유,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변동과 생산량 추이에 크게 좌우되는 경제구조임.
- 이에 대응해 카타르 정부는 장기국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다변화 노력(여행업, 제조업, 금융산업 및 교육 등 육성)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2017년 기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에너지 부문(원유, 천연가스)이 재정수입의 82%, GDP의 32%,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 부문이 취약

- 카타르는 2015년 기준 총인구의 88.4%가 **非카타르인***이며, 2017년말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94.9%가 **非카타르인**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아울러, 202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도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인구구성('15년) : 인도(25.0%), 네팔(13.5%), 방글라데시(10.8%), 필리핀(10.0%), 이집트(8.6%) 등

** 카타르 인구 추이(만명) : 222('14) → 244('15) → 262('16) → 274('17) → 278('18°)

- 한편, 2017년말 기준 카타르 자국민의 81%가 고임금의 공공 부문*(정부,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非카타르인**의 약 80%가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한편, **非카타르인**의 대부분은 중등교육 이하**를 받은 비숙련노동자로 2017년 기준 **非카타르인**의 43.4%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낮은 소득 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민간 부문의 발전이 더딘 편임.

* IM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카타르의 공공 부문 임금은 민간 부문 임금의 1.7배에 달함.

성장잠재력

원유·천연가스 등을 다량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

- 카타르는 한반도 면적의 1/20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7년 기준 원유 252억 배럴(세계 14위), 천연가스 24.9조 m³(세계 3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부국임.
- (원유) 원유는 천연가스에 이어 카타르의 제2의 수입원으로, 카타르는 1961년 OPEC에 가입하여 2017년말 기준 OPEC 회원국 중 약 2%의 원유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2017년 이후 이어진 단교사태 등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을 2019년 1월 공식 탈퇴하며 LNG 생산 부문에 주력할 예정임을 밝힘.
- (천연가스)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가스전(North Field, 전 세계 매장량의 15% 차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미국·호주 등 신규 경쟁자가 등장함에 따라 LNG 시장 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개발 유예를 선언한 North Filed 가스전에 대해 2017년 4월 개발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LNG 생산량을 2018년 7,700만 톤에서 2024년까지 1억 1,00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정책성과

장기 국가개발계획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수립 및 시행

- 카타르 개발기획처(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GSDP)는 에너지 중심 경제구조 탈피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8년 10월 장기 국가개발계획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이의 실현을 위한 중기개발계획 “국가발전전략 2011~16”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8년에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8~22”을 수립·발표하였음.
- (국가 비전 2030) 카타르 정부는 “국가 비전 2030”에서 5대 과제와 4개 분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5대 과제 : ①현대화 및 전통 보존, ②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 충족, ③관리된 성장과 자유로운 확장, ④노동력 개발 및 노동시장 균형, ⑤환경을 생각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 ** 4개 분야 목표 : ①인적자원 개발, ②사회개발, ③경제개발, ④환경개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의 4개 분야 목표 세부내용

개발부문	중점개발 분야 및 실행방안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있는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 확립 · 유소년의 동기부여를 위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구축 등 - 심신이 건강한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통합 의료 시스템 구축 · 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 유능하고 동기부여된 노동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사립 교육기관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 투자 · 카타르인이 비즈니스, 보건·의료, 교육 부문 진출시 인센티브 부여 · 이주노동자의 적정비율 고용 및 인권 보호, 안전 보장 등
사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및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권 보장 및 적정 생계비 보장 등 - 건강한 사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사업체의 필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카타르 문화유산 보호, 아랍·이슬람의 정체성 확립 등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프협력이사회(GCC), 아랍연맹(Arab League), 이슬람회의기구(OIC)에서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역할 담당 등
경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경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세대, 후세대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계획 수립 · 국내외 투자 및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 등 - 책임있는 석유 및 가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량 및 생산량, 경제적 다양화 및 고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탄화수소자원 개발 · 기술혁신, 인적자원·경제적 능력 개발 등 국가 전 분야에 기여하는 자원 개발 등 - 경제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화수소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문의 역할 및 경쟁력 증대 도모(탄화수소 산업에서 파생되는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및 서비스 육성 등)
환경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및 환경보호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도시계획 수립 ·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법체계 확립 등

정책성과

국가발전전략 및 2022년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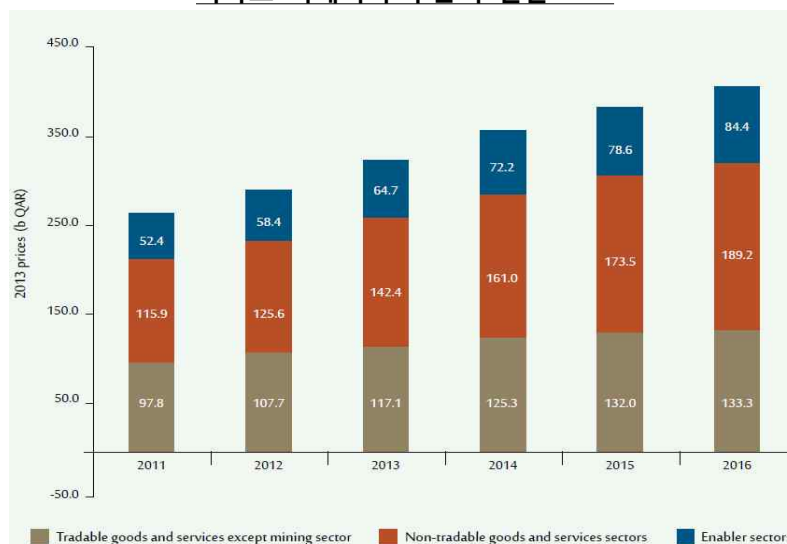
- 카타르 정부는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1차 국가발전전략(2011~16년) 추진 당시 교통·물류, IT 등 인프라 부문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재정지출의 40% 이상을 배정하여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경기장, 호텔, 도로 및 지하철, 공항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타르의 인프라 관련 순위는 2008~09년 조사대상국 134개 중 35위에서 2017~18년 조사대상국 137개국 중 13위로 현저히 상승하였음.
- 한편, 카타르는 최근 발표한 2차 국가발전전략(2018~22년)에서 ①2022년까지 건설기자재 재활용 비율 20% 달성을 통한 경제적인 인프라 건설, ②2020년까지 도하 지하철 건설 완료 및 운행 개시, ③공항 및 항만 인프라 추가 확충 및 현대화 계획 등을 발표하였음.

산업다각화 및 민간 부문 개발 추진

- 카타르 정부는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해 제조업, 과학기술, 금융, 물류, ICT 산업 등 비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 공장, 산업기자재 등 자본재 투자를 통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을 통한 민간 주도 개발 프로젝트 앞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Enabling sector"*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비교역재 부문의 2011~16년 평균성장률이 각각 10%, 10.3%를 차지하는 등 비에너지 산업이 성장하였으며, 카타르항공의 영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부문 수출액이 2012~16년 중 연평균 15.8% 증가하였음.

* 다른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교통, 물류, ICT, 금융 등이 있음.

카타르 비에너지 부문의 실질 GDP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 한편, 2차 국가발전전략(2018~22년)에서는 ①주요 비에너지 산업 부문 지속 육성 및 노동력 재배치, ②2020년까지 노동생산성 개선 도모, ③비에너지 산업의 재화·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한 최종재 생산 비중 증가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음.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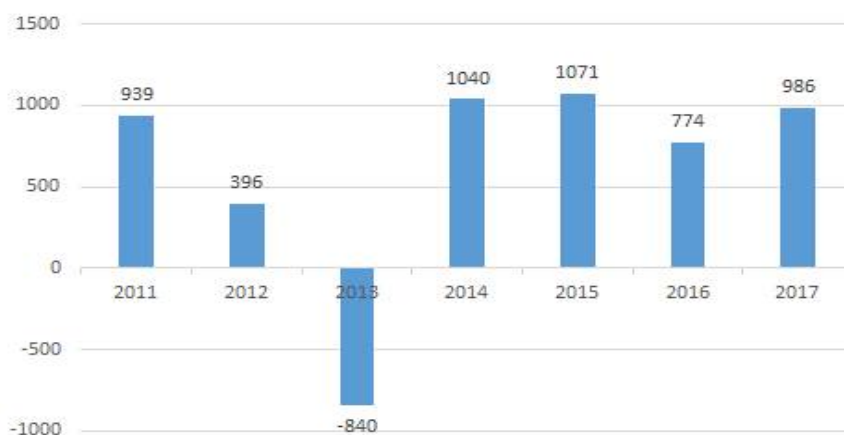
특별경제구역 조성, 투자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입 증진 도모

- (특별경제구역)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하마드 공항 근교 (Ras Bufontas), 하마드 항구 근교(Um Alhoul) 및 사우디 국경 근교(Al Karaana) 등 총 3개의 특별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특별경제구역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법인세 감면, 각종 인허가 용이 등의 이점을 제공할 예정임.

 - Ras Bufontas, Um Alhoul은 2019년에 개장 예정으로 현재는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s Authority, QFZA)*에서 관리 중이며, Al Karaana는 당초 2018년부터 투자 유치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마나텍(Manateq)**에서 관리 중임.
 - *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FZA) : 2018년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음.
 - ** 마나텍(Manateq) : 2011년 카타르경제자유구역공사(Economic Zones Company, EZC)가 설립된 후 2015년 사명을 마나텍(Manateq)으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경제구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투자규제 완화) 카타르 정부는 2018년 5월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투자 허용', '상장 기업 지분을 49%까지 취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법(Law No.1 of 2019) 개정을 통해, 기존에 내각의 허가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100% 지분투자를 허용하던 것에서 모든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음.

카타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정치동향

Tamim 국왕의 통치 아래 정치안정 지속

- Tamim 국왕은 2013년 6월 아버지 Hamad 前국왕(재위기간 1995~2013년)의 갑작스러운 왕권 이양에 따라 33세의 나이에 새 국왕으로 즉위한 후, 단기간에 신규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Hamad 前국왕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 Hamad 前국왕은 2003년 3권 분립의 토대가 된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함. 이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에 의회 기능* 보장, 종교법원과 일반법원의 일원화 등 입법·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함.
 - * 명목상 의회의 기능을 담당할 뿐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서구 개념의 의회는 아니며, 당초 총 45명 중 30명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집권 가문 내 이견 등으로 선거가 계속 연기되어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 있음.
- 카타르는 형식적으로는 내각의 총리가 존재하는 입헌군주제이나 Tamim 국왕이 국가원수로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자문위원회 해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 한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Democracy Index 2018에 따르면, 카타르는 선거 미 실시, 소수 가문의 정치권력 독점에 따른 정치참여 제약,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미비 등의 요인으로 167개국 중 133위로 독재(Authoritarian) 국가에 해당함.
- 다만, 주변 아랍 국가에 비해 높은 국민소득, 풍부한 복지혜택 및 언론 자유 보장 등에 기반한 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낮은 부정부패 수준 등 정치불안 요인이 거의 없어 당분간 정치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사회동향

중립 외교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로 사회안정 도모

- 카타르는 친서방 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중립 외교노선에 따라 아랍 각국의 이슬람주의 세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테러 위협이 낮은 편이며, 정부가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치안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도시통계 사이트 Numbeo가 2019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선정된 바 있음. 또한, 이슬람 수니파 국가이지만 종교에 대해 온건 개방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체류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며, 개신교·가톨릭 신자를 위한 교회·성당의 운영도 허용하는 등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편임.
- 다만, 2017년 이후 지속된 단교사태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Global Peace Index 2018에 따르면 카타르의 세계평화순위는 163개국 중 56위로 전년(30위)보다 26계단 하락하였으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내에서는 종전 1위에서 3위로 하락하였음.

사회동향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최근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 관련 건설 부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급증에 따라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 체불 등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개선책을 도출하여 소요사태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음.
- 국제앰네스티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카팔라(Kafala) 제도의 영향으로 카타르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위험한 근무환경 및 생활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다만,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 카타르 정부는 출국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혁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카팔라 제도로 인해 직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임금착취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 고용주 승인 없이 이주 노동자가 출국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회사 전체 근로자 중 5%는 사전허가 필요
-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금보호제도 도입, 가사노동자보호법 제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주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기술협력을 시작해 2018년부터 향후 3년간 임금 수준 개선, 카팔라 시스템의 근로계약으로의 대체, 강제노동에 대한 감시 등을 실시할 예정임.

국제관계

실용주의 균형 외교노선 유지

- 카타르는 실리와 균형을 중시하는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해 역내 아랍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도 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중립 외교노선을 채택하여 왔음.
-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유럽연합(EU)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는 친서방노선을 취하는 동시에 이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등 역내 반미 이슬람주의 진영과 적절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외교노선을 유지하여 옴.
 - *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 중이며, 카타르 내 중부사령부 기지, 공군기지에 미군이 주둔 중임.
 - ** EU 회원국들과 14건의 무역·경제·기술 협정 체결, 12건의 상호 투자협정 등을 체결한 바 있음.
-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가스전인 South Pars를 공유하고 있는 이란(시아파)과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경 이슬람 세력과 온건·중도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여 왔음. 다만, 이로 인해 아랍 세계에서 이란과 패권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수니파)의 반감을 산 결과 2017년 단교사태로 연결되었음.

국제관계

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및 아랍 국가 등의 카타르에 대한 단교 지속

- 2017년 5월 카타르 국영 언론사인 Qatar National Agency(QNA)가 카타르 타미م 국왕이 군사학교 졸업식에서 이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우호적인 연설을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 GCC 국가 및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가 테러집단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음.
 - * 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을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음.
- 단교의 표면적 이유는 카타르가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카타르 방송사 알-자지라(Al-Jazeera)의 걸프 지역 왕정국가 내부 문제점 보도,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과의 우호관계 유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주요 단교조치 내용은 ①48시간 내 자국 내 카타르 외교관 추방 및 카타르 주재 자국 외교관 소환, ②카타르와의 육상, 영해, 영공을 통한 국경 봉쇄, ③자국 내 카타르인 추방 및 카타르와 민간인 상호 방문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 4개국(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은 ①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②이란과의 외교관계 격하 및 카타르 주재 이란 외교공관 폐쇄, ③무슬림형제단 지원 중단, ④터키와의 군사적 협력 중단 등 13개 외교 정상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바 카타르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이란·터키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단교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를 고립시키기 위해 카타르와의 국경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카타르는 이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이슬람회의기구(OIC)에 제소하고 OPEC을 탈퇴하는 등 양국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GCC 국가 중 오만,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경제 봉쇄에 참여하지 않고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GCC 내부의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카타르는 이란, 터키 등으로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고 있음.
- 2019년 2월 UAE는 단교사태 후 처음으로 카타르를 왕래하는 제3국 화물선의 선적과 하역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양국 소유 선박이 아닌 제3국 화물선에 대해 입항 허가 조치이며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이를 단교 해제 조치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태도

높은 총외채 비중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위험은 낮은 편

-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여신총액 238.0억 달러(단기 4.0억 달러, 중장기 234.0억 달러)중 연체이력은 0.9백만 달러*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독일 0.1백만 달러, 벨기에 0.8백만 달러

- 한편,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외환보유고 및 국부펀드 규모 등을 고려시 외채상환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2 (2019.03)	B2 (2018.04)
OECD	3등급(2019.01)	3등급(2018.01)
Moody's	Aa3 (2018.07)	Aa3 (2017.07)
Fitch	AA- (2018.10)	AA- (2017.08)

OECD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카타르에 3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신용평가 3사는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4개국의 카타르 경제봉쇄 조치로 카타르의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해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2017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신용등급 하향 당시 신용평가3사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 중 카타르 정부의 단교사태 대응 노력,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유지하고 있음. 한편 IMF는 2018년 11월 성명을 통해 카타르의 외환보유고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지 흑자 기록 등을 고려하여 재정·외환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카타르는 원유·천연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로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어 2017년 1.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 중 국제유가 상승 및 FIFA 월드컵 준비를 위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으로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출액 및 재정수입 감소로 2016년에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18년 중 LNG 수출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흑자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 즉위한 Tamim 국왕은 신규 내각 구성 및 Hamad 前국왕의 개혁정책 이행 등을 통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 국가개발계획 시행을 통해 산업 다각화 및 민간부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들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실용주의·중립 외교노선을 취하던 카타르에 2017년 6월 GCC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및 아랍 국가 등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국경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카타르 정부의 교역국 대체 노력 및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경제상황이 회복 중에 있음. 한편,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 풍부한 국부펀드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2로 유지하고자 함.